


<p>교훈 : 성실</p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가 정 통 신 문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전자담배의 위험성 예방교육</b></p>	<p>제 2022 - 178 호</p> <p>담당 : 예체건강부</p> <p>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</p> <p>☎ (교무실) 031-365-8200</p> <p>☎ (행정실) 031-365-8207</p>
--	--	--

## 1. 전자담배의 위험성

- 가. 궤련형 전자담배(가열담배):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)릴, 아이코스  
 나. 액상형 전자담배: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

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 
**“중증 폐손상 사례”** 및 **“사망사례”**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.  
(19.10.15. 기준)



**중증 폐 질환 사례 1,479건**



**사망사례 33건**

\*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 1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 중

지금까지 확인된  
**중증 폐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**호흡기 이상 증상**

- 기침
- 호흡곤란
- 가슴통증



**소화기 이상 증상**

- 메스꺼움
- 구토
- 설사



**기타 증상**

- 피로감
- 발열
- 체중감소

**“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”**의 대다수가 **대마 성분(THC)\*** 및 **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**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일부는 **니코틴만 포함된 제품**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

대마 성분 (THC)



니코틴

\* THC(tetrahydrocannabinol):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

현재, 미국 정부는 **“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”**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**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** 하였습니다.



**사용 자제 권고**

## 2.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

### 가. 오해 1위.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?

-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다.
-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.

### 나. 오해 2위.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?

-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
-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.
-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‘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’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 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, 경우에 따라서 연초 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.

### 다. 오해 3위. 전자담배(니코틴 함유)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?

-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
- 전자식 흡연 욕구저해제(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)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

2022. 11. 29.

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[직인생략]